

## 오하시 모에몬과 요리키

에도시대 중기인 엔쿄연간(1744~ 1748) 평면도를 보면, 미나미 타마치에는 마쓰에번의 첫 번째 중신인 오하시 모에몬의 드넓은 저택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하시가는, 연고가 있는 자를 요리키로 채용하여, 저택의 부지 안에 요리키 주택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조사에서는 초석이나 홋타테 기둥(초석을 쓰지 않고, 지면에 구멍을 뚫어 박은 기둥)과 같은 요리키 주택의 자취와 함께, 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담뱃대, 관영통보(에도시대에 널리 유통된 화폐), 다수의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오하시 이자에몬의 요리키 주택에서 발견된 직경 6~8cm 정도 크기의 철구(鐵球)입니다.

「철환」이라고 불리는, 화재를 막는 제사도구이며, 같은 것이 이즈모 지방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 밑에 많은 돈을 뿌리는 「마키제니(撒錢)」라는 주술을 행한 요리키 주택과 쇧조각을 넣은 나무통을 묻은 요리키 주택 등, 현재는 행하지 않게 된 주술의 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키」란?

상급 가신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지휘하에 속한 무사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오하시 모에몬의 요리키 주택이 있었으며, 그 자취로서 요리키 마치라는 명칭이 남아 있습니다.